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의 현황 연구*

김 상 유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1. 서론

한국문학이 스페인어권에 알려지게 된 출발점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¹⁾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지는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스페인어권의 교류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여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분야의 교류 역사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사실, 한국에서의 스페인어 보급 및 스페인어권 문학작품의 소개도 타언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지리적인 원거리성과, 한국과 스페인어권 국가들 공히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AM3002).

1) 최초로 스페인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작품은 김현창 번역의 한국 시선집인 *Poesía coreana*(한국의 시)이며 스페인 마드리드의 Editorial Avila 출판사에서 1967년 출판되었다.

수 있다. 점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높아감에 따라, 경제라는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문학을 포함하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교류 과정 속에서 문학작품의 번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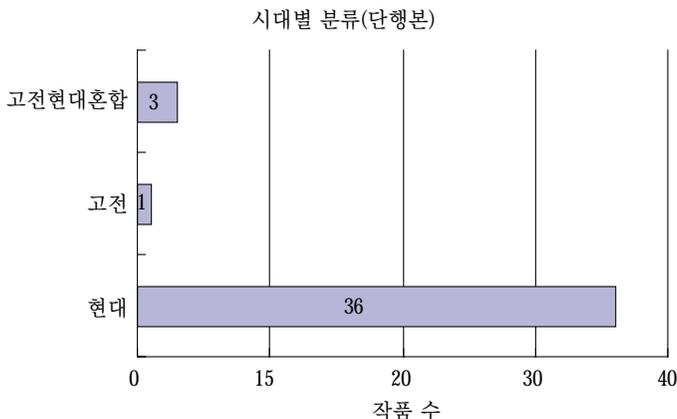
스페인어는 세계 20여 국가에서 공용어로 사용하고 그 사용인구도 4억 여명에 이르며,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용어이자 국제교류활동에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문학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한국문학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온 역사는 짧지만, 최근에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스페인어로의 번역활동 및 스페인어권과의 문학교류가 확산 및 발전되고 있다.

2002년 말까지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된 단행본 수는 40여 권, 개별작품 수는 2100여 편이며, 현재 번역과정에 있는 작품도 상당수에 이른다. 본 연구는 2002년 말까지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된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에 실린 작품들을 기준으로, 그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번역 출판된 문학작품의 시대 및 장르별 현황, 작가 및 해당 작품별 현황, 번역자별 현황, 출판년도와 출판지 및 출판사별 현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산출한 후, 이들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한국문학의 스페인어권 소개 현황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할 것이다.

2. 한국문학의 스페인어번역 현황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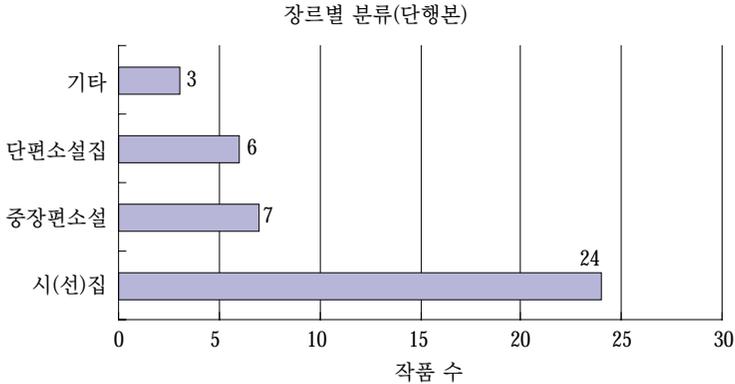
1) 스페인어번역 한국문학작품의 시대 및 장르별 현황

스페인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은 단행본(2002년 말 기준)으로 총 40종이며, 그 중 현대문학작품이 36종이고 고전작품과 현대작품이 혼합되어 간행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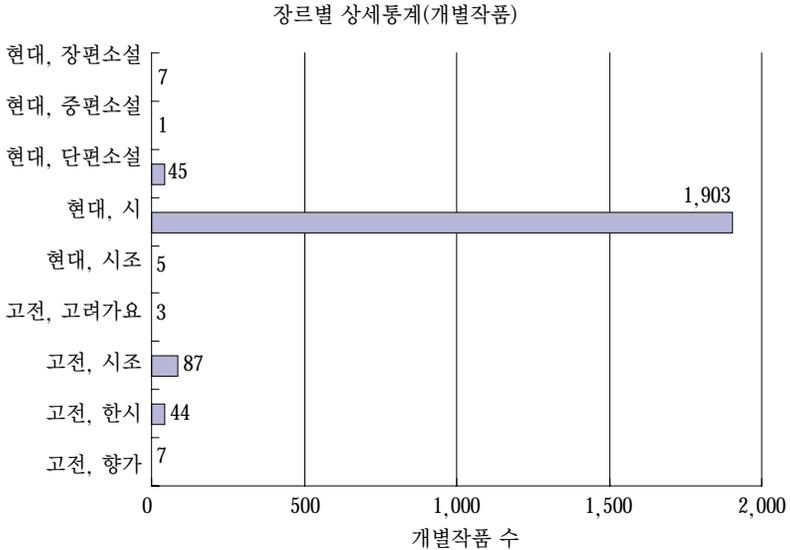
단행본이 3종이며 고전작품이 1종이다. 고전작품에 분류된 1종은 황패강의 『한국의 신화』(*Mitos coreanos*)를 번역한 것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순수 문학적 범주에서 벗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작품과 현대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단행본 3종은 모두 시선집이며, 따라서 시 장르(향가, 고려가요, 한시, 시조 등)를 제외한 타 장르의 고전작품의 번역이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세 권의 단행본은, *Poesía coreana*(한국의 시, 김현창 역), *Antología de la poesía coreana*(한국 시선집, 김현창 역), *Oro y flor de la poesía coreana*(한국 명시선, 민용태 공역)로 그 중 *Poesía coreana*(한국의 시)와 *Antología de la poesía coreana*(한국 시선집)에 포함된 상당수의 개별작품들이 중복되므로, 사실상 고전작품의 수는 더욱 미미하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시집과 시선집이 24종이며, 장편소설이 7종, 단편소설집이 6종, 기타(신화, 문학사, 평론집 등)가 3종이다. 장편소설 가운데는 이문열의 소설 『시인』이 두 개의 번역본으로 출판되었는데, 하나는 아나 로다(Ana Roda)가 불어판 소설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출판되었으며(*El poeta*, Bogota, Editorial Norma, 1994), 채미영 번역의 또 다른 판본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판되었다(*El poeta*, Barcelona, Ediciones B, 2000). 그리고 중편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Nuestro frustrado héroe*, 김진수 공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된 장편소설은 엄밀히 말하면, 6권(중편 1권 포함)이다. 기타로 포함된 *Mitos coreanos*(『한국의 신화』, 김창민 공역),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한국문학강의』, 조동일 편, 이용선 공역)와 *Comprensión de la literatura coreana*(『한국문학의 이해』, 김홍규 저, 이용선 공역)를 제외한 순수 문학작품에 속하는 단행본은 37권이다. 단행본 외에 정기간행물로 한국국제 교류재단에서 발행되는 스페인어 계간지 *Koreana: Arte y Cultura de Corea*(한국의 예술과 문화)에 단편소설 한 작품씩 매호 게재되고 있으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서 *Korean Literature Today* 스페인어 판이 2001년 가을에 한 차례 간행되어, 여러 장르의 문학작품이 게재된 바 있다.

도표 <장르별 상세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로 번역된 개별작품 가운데, 현대 장편소설의 경우 7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완역되어 출판되지 않은 이인화의 *El imperio eterno*(『영원한 제국』, 송병선 공역, 정기간행물 *Korean Literature Today*에 소설의 일부가 실림)가 포함되어 있다. 현대 단편소설은 소설집 형태의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과 정기간행물에 실린 전체 통계는 45편이나, 여기에는 3편의 작품이 중복 출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42편의 단편소설이 번역 출판되었다.²⁾ 그리고 시집 혹은 시선집에 실린 현대시는 총 1,903편이며, 비록 이 수치 속에는 중복 번역 출간된 상당수



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서 현대시가 스페인어로 활발히 번역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반면, 고전문학작품의 경우, 일부의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등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고전문학작품들은 앞서 언급한 3권의 단행본에 속해 있는 것들로, 향가의 경우 총 7편의 번역본이 실렸는데, 이 가운데 「제망매가」가 세 권 모두에 실렸고, 「모죽지랑가」가 2회, 「처용가」와 「혜성가」가 각 1회로, 실제로 스페인어로 번역된 향가 작품의 수는 이들 네 편에 불과하다. 또한 세 편의 번역본이 실린 고려가요는 「가시리」(2회)와 「청산별곡」 등 두 편이 번역되었다. 고전 한시의 경우, 번역된 44편 가운데, 조선시대 승려들의 한시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전 시조의 경우 총 87편의 번역본이 실렸다. 고전 시조 가운데, 황진이

2) 이미 다른 소설집에 실렸던 「거울 속으로의 여행」(김주영), 「날개」(이상), 「밤비」(오정희) 등, 세 편이 스페인어판으로 간행된 *Korean Literature Today*(국제펜클럽 한국본부, 2001년 가을호)에 다시 실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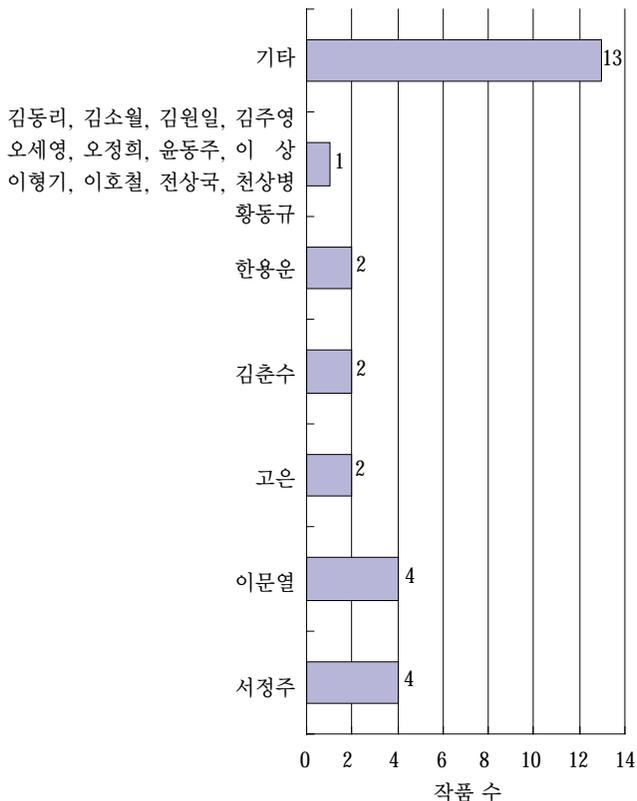
의 「청산의 내 뜻이오」, 원천석의 「홍망이 우수하니」, 정몽주의 「이 몸이 죽고 죽어」, 이조년의 「이화에 월백하고」, 정철의 「내 마음 베어내어」 등이 각 세 편씩의 번역본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한국문학의 스페인어 번역의 시대별 그리고 장르별 분류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한다면, 시대별 분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고전문학작품의 번역이 미진하다는 점, 즉 단행본으로 발행된 번역도서 가운데, 고전문학작품집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대시와 같이 실린 고전시 계열의 작품만이 번역되었으며, 장르별 분류에서는 현대문학작품에 있어서 소설보다는 시가 현저하게 많이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전반적인 번역경향을 토대로 하여, 다음에서는 스페인어권 번역현황 통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시와 현대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려고 한다. 즉,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과 작가의 경향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할 것이며, 여기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작가 및 작품별 현황(현대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2002년 12월까지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된 단행본을 작가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이 소개된 한국작가는 도표 <작가별 분류>에 나와있듯이 시인으로는 서정주, 그리고 소설가로서는 이문열로 각 네 권씩 출판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은, 김춘수, 한용운 등이 각 두 권씩 번역출판 되었다. 기타로 분류된 단행본은 여러 작가의 작품을 동시에 신고 있는 시선집이나 단편소설집을 의미한다. 서정주의 경우 네 권 모두 같은 번역자(김현창)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그 중 Junto al crisantemo(국화 옆에서, 1988), Poemas(서정주 시선, 1995), Epítome de Sil-La(신라초, 1997) 등 세 권이 시선집이며, 최근에 출간된 Poemas de un niño vagabundo de ochenta años y otros poemas escogidos(80소년 떠돌이의 시 외, 2000) 또한 그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집 『80소년 떠돌이의 시』와 더불어 다른 시들이 함께 수록된 시선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서정주는 한 번역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금까지 번역되

작가별 분류(단행본)



어, 스페인어로 가장 많이 소개가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서정주 이외에 단행본으로 번역 출판된 시인들은 고은, 김춘수, 한용운, 김소월, 오세영, 윤동주, 이형기, 천상병, 황동규 등으로, 일부 단행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선집이다.³⁾ 비록 한국현대 시인들이 소설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스페인어로

3) 시선집이 아닌 시집으로 출판된 작품들은 고은의 『뭉냐』, 김춘수의 『들림 도스토예프스키』, 서정주의 『80소년 떠돌이의 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번역출판 작품이 시선집을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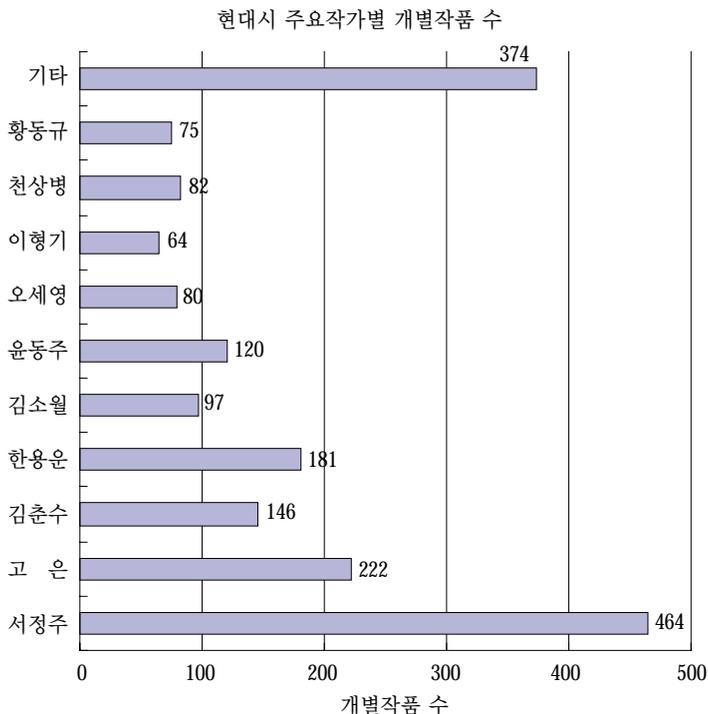
번역되긴 했지만, 한국문학의 전체적인 판도를 고려한다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소설 장르에 있어 스페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이문열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장편 『시인』(*El poeta*)이 다른 번역자에 의해 두 번 번역되었으며, 이외에 장편 『젊은 날의 초상』(*El invierno de aquel año*)과 중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Nuestro frustrado héroe*)이 번역되었다. 이문열 작품 이외에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된 장편소설들은 김동리의 『을화』(*Ulhwa, la exorcista*),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La casona de los patios*), 이호철의 『소시민』(*El ciudadano pequeño*) 등 세 편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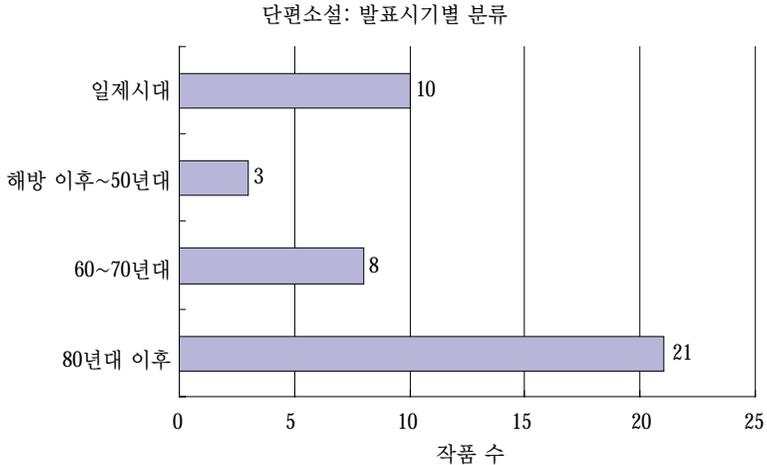
이상 단행본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시작품에 대한 통계와 단편소설을 포함하는 소설 작품에 대한 통계를 검토해 보려 한다. 시작품의 경우, 개별작품 수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는데 어려움 있다. 이는 한 시인의 같은 작품이 여러 번 번역되었거나, 같은 번역이 중복해서 다른 책에 실린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한 같은 시인이라도 제목이 동일한 다른 시를 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도표에 나타난 수치는 중복번역 혹은 중복 게재된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미리 밝혀둔다.

먼저, 서정주 시인의 개별작품수가 464편인데, 이중에 55수 정도가 두 번 이상 번역되거나 중복 게재되었으며, 「님은 주무시고」, 「동천」이 5회, 「내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돌이 되면」, 「노인현화가」, 등이 4회, 「가벼히」, 「국화 옆에서」, 「꽃」, 「나그네의 꽃다발」, 「내 영원은」, 「밤에 핀 난초꽃」, 「부활」, 「산골 속 햇별」, 「소곡」, 「우리 님의 손톱의 분홍 속에는」, 「이런 나라를 아시나요」, 「인연설화조」, 「자화상」 등이 각 3회로 가장 많이 번역된 시들이다. 중복번역 혹은 중복 게재된 시를 제외하더라도 서정주의 시는 380여 편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25수 가량이 중복 번역된 고은의 시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시는 「바람」(4회)이며, 「낮」, 「빨래」, 「친구」 등의 시

그 만큼 번역 및 출판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되도록 많은 작가와 그 대표작을 알릴 필요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는 3회 번역되었다. 한용운의 시는 181수가 번역되었으나, 몇 편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번역자에 의해 중복 번역된 시들이다. 특히 김창환 역의 *Antología poética de Jan Yong-Wun*(한용운 시선)에 수록된 시와 김현창 역의 *Su Silencio*(님의 침묵)에 수록된 시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한용운의 전체 시작품수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그의 시집 『님의 침묵』에 실린 88편의 시가 그의 시 세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번역된 한용운의 시로는 「님의 침묵」(5회)과 「최초의 님」(4회)이며, 그 외 「나룻배와 행인」, 「알 수 없어요」 등이 3회 번역되었다. 김춘수의 경우,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은 그의 대표작 「꽃」(4회)이며, 중복 번역된 작품 수는 몇 편 되지 않는다. 김춘수의 시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단행본이 2권인데, 그 중 한 권은 시선집이지만, 또 다른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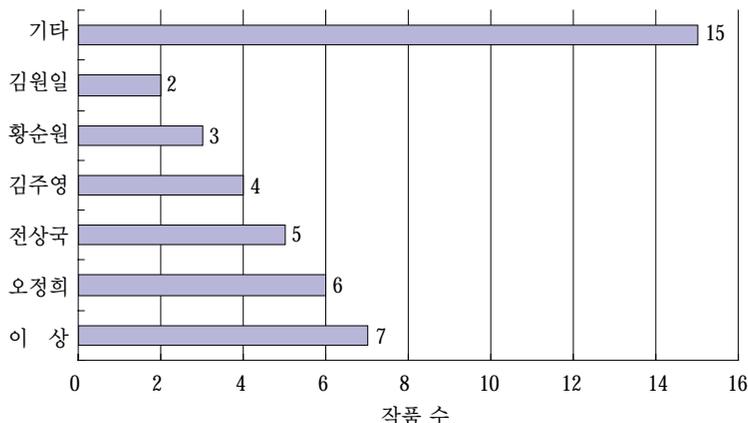


서는 최근에 출간된 그의 시집 『들림 도스토예프스키』(1997)만을 실었기 때문이다. 운동주의 경우 중복 번역된 시는 그리 많지 않고 「별 헤는 밤」(3회)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으며, 이와는 달리 김소월의 경우 97편 가운데 중복 번역된 시가 20여편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그 중 「진달래꽃」(4회)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으며, 「개아미」, 「구름」, 「금잔디」, 「만리성」, 「먼 후일」, 「바다」, 「산」, 「산유화」, 「월색」, 「초혼」 등이 3회 번역된 시작품들이다. 비록 김소월의 경우 번역된 단행본은 한 권이지만, 여러 한국 시선집에 김소월의 대표작들이 다수 실렸기에 중복번역 작품의 비율이 높다.

이상에서 개별작품 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번역 소개된 서정주, 고은, 한용운, 김춘수, 김소월 등의 번역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⁴⁾ 시인에 따라서 중복번역의 비율이 높은 시인이 있고 낮은 시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특정 시인의 시선집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인의 대표작일수록 중복번역의 빈도가 높아진다.

4) 이들 시인 이외의 작품으로 가장 많이 번역 소개된 작품은 유지환의 「깃발」이며 세 권의 번역서에 실렸다.

단편소설: 작가별



스페인어로 번역 소개된 단편소설의 작품 수는 42편으로, 도표 <단편소설: 발표시기별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절반 가량이 80년대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이며, 일제시대 발표된 10편 가운데 이상의 작품이 7편을 차지하며, 현진건, 박영준, 김유정 등의 작품이 각 한 편씩 번역되었다. 해방이후부터 50년대까지 발표된 작품은 모두 황순원의 작품이며, 60~70년대의 작품 8편 모두 70년대에 발표된 것으로, 최인호, 박태순, 조선작, 조세희, 전상국, 김원일, 오정희 등의 단편소설이다. 따라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단편소설들은, 이상을 비롯한 몇몇 작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70년대 이후에 발표된 작품(모두 29편)이라고 볼 수 있다. 도표 <단편소설: 작가별>은 번역된 단편소설을 작가별 작품수로 분류한 것이다. 총 21명의 작가들의 단편소설이 번역되었으며, 작가들 대부분은 한 작품씩 번역소개 되었다.⁵⁾ 이상, 오정희, 전상국, 김주영 등의 단편소설

5) 도표에서 기타는 한 작품만 번역소개된 작가들의 작품수를 의미한다. 스페인어로 번역된 단편소설들의 목록(작가별 가나다순)은 다음과 같다: 공지영(「꿈」), 김원일(「도요새에 관한 명상」, 「마음의 감옥」), 김유정(「봄봄」), 김주영(「거울 속으로의 여행」,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괘종시계」, 「배고픔의 흔적」), 박영준(「모범경작생」), 박태순(「정든 땅 언덕 위」), 신경숙

작품수가 여타 작가보다 많은 이유는, 해당 작가의 작품만을 모은 소설집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단편소설 또한 스페인어로 번역된 작품수가 제한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번역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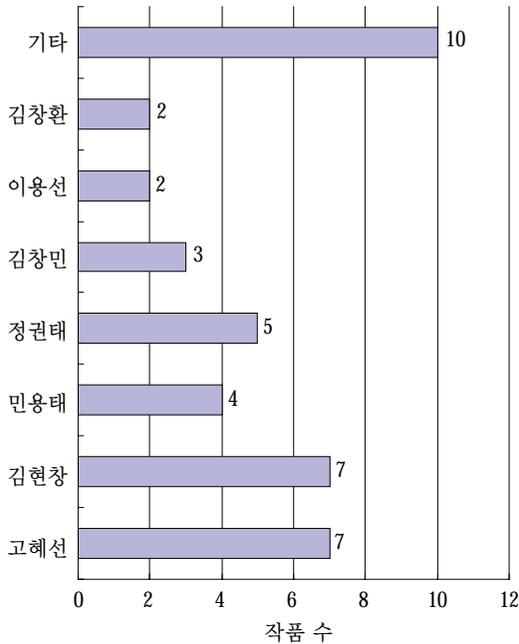
한국문학작품의 스페인어권에 대한 소개에 있어, 한국인 단독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제도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한국문학번역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의 정책에 기인하며, 스페인어로의 번역에 있어서는 주로 한국인이 번역을 하고, 스페인어권 출신 원어민이 그 번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좀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동으로 번역하는 외국인은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이 주도하여 단독으로 번역한 경우가 아주 드물다. 스페인어로 번역된 작품 중에 외국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있었지만,⁶⁾ 이 경우 불어에서 중역한 것으로, 직접적인 번역으로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의 번역은 한국인의 도맡아, 주된 역할을 했기에 한국인 번역자에 대한 의존도가 타 언어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먼저 한국인 번역자는 도표 <한국인 번역자: 단행본 기준>⁷⁾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행본 기준

(「여자의 이미지」), 오정희(「동경」, 「바람의 뉘」, 「밤비」, 「별사」, 「유년의 뜰」, 「중국인의 거리」), 윤정선(「해질녘」), 이무현(「카타르시스」), 이문구(「우리 동네 장씨」), 이상(「날개」, 「단발」, 「동해」, 「봉별기」, 「실화」, 「종생기」, 「환시기」), 임철우(「동행」), 전상국(「고려장」, 「썩지 아니할 씨」, 「아베의 가족」, 「우상의 눈물」, 「지빠귀 등지 속의 빠꾸기」), 조선작(「성벽」), 조세희(「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조정래(「유형의 땅」), 최인호(「타인의 방」), 한수산(「회선」), 현진건(「운수 좋은 날」), 황순원(「과부」, 「독짓는 늙은이」, 「소나기」) 등.

6) 아나 로다(Ana Roda) 번역의 *El poeta*(이문열의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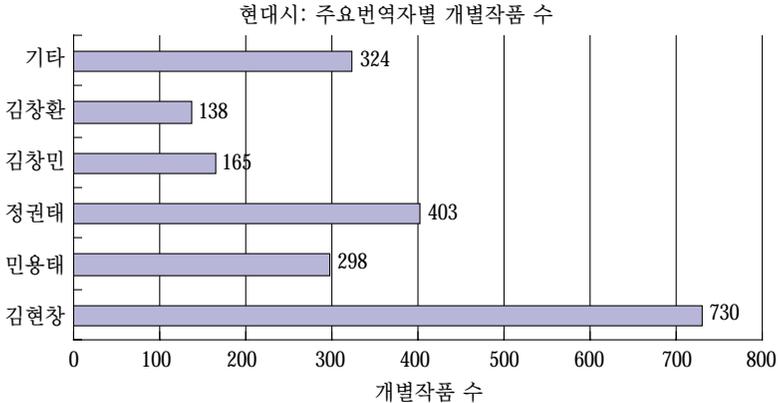
7)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번역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권은희, 윤준식), 김은경,

한국인 번역자(단행본 기준)



으로 많이 번역한 번역자는 김현창, 고혜선이며, 그 외, 정권태, 민용태, 김창민 등이 다수의 작품을 번역하였다. 한국인 번역자는 대부분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상 번역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몇 번역자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고혜선의 경우 7종 모두 소설 장르의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그 중 5종은 단편소설집이며, 2종은 장편소설이다. 김현창, 정권태, 민용태, 김창환 등의 번역자는 모두 시집을, 김창민은 시집 2종과 신화집 1종을, 이용선은 문학작품이 아닌 한국문학의 이해를 돕는 평론서들⁸⁾을 번역하였다.

김진수, 송병선, 서성철, 유헤명, (윤선미, 김승기), 이승재, 채미영, 추원훈 등(괄호에 묶인 번역자는 같은 책을 공역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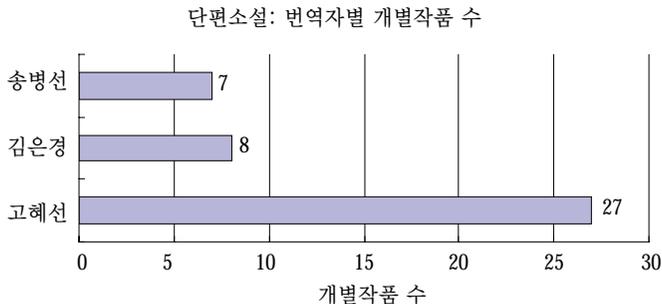


장르별로 나누어 번역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표 <현대시: 주요번역자별 개별작품수>⁹⁾에서 보듯 현대시의 경우 전체 개별작품수의 38%에 해당하는 730편이 김현창 번역으로 스페인어권에 소개되었다. 그가 번역한 7종의 책 중 4종이 서정주의 시집이나 시선집이며, 2종이 고전작품과 현대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선집이고, 나머지 한 권은 한용운의 시집이다. 다른 작가의 작품보다 스페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서정주의 시 대부분이 김현창 번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그 외의 번역자에게선 특정한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지 않으며, 다양한 시인의 작품을 번역 출간했다.

소설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의 단행본은 총 13종으로 이중, 고혜선 번역이 7종(단편소설집 5종, 장편소설 2종)으로 가장 많으며, 김은경, 김진수, 송병선, 유해명, 채미영, Ana Roda 등이 각 1종의 단행본을 번역하였다. 소설 장르가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번역이 미진한 이유는, 몇몇 소수의 번역자만이 소설 장르를 번역했다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즉 소설 번역에 있어 번역자

8) 『한국문학강의』(조동일 편)와 『한국문학의 이해』(김홍규 저).

9) 민용태, 정권태가 공역한 *Flor y oro de la poesía coreana*(한국 명시선)의 개별작품 수를 두 번역자의 개별작품 속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도표에서 번역자별 개별작품의 총합은 실제의 총합보다 많은 2,058수 이다.



의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표 <단편소설: 번역자별 개별작품 수>에서 보듯, 단편소설 42편을 번역한 번역자는 단지 3명에 불과하다. 그 중 고혜선 번역의 단편소설은 모두 단편소설집에 실린 작품이며, 송병선 번역의 단편소설은 모두 이상 작품집, *Flores de fuego*(불꽃)에 실린 것들이다. 한편, 김은경 번역의 8편의 단편소설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발간하는 스페인어판 계간지, *Koreana: Arte y Cultura de Corea*(한국의 예술과 문화)에 실린 작품이며, 이 잡지는 현재 지속적으로 한국 단편소설과 그에 해당하는 작가평을 매 회 번역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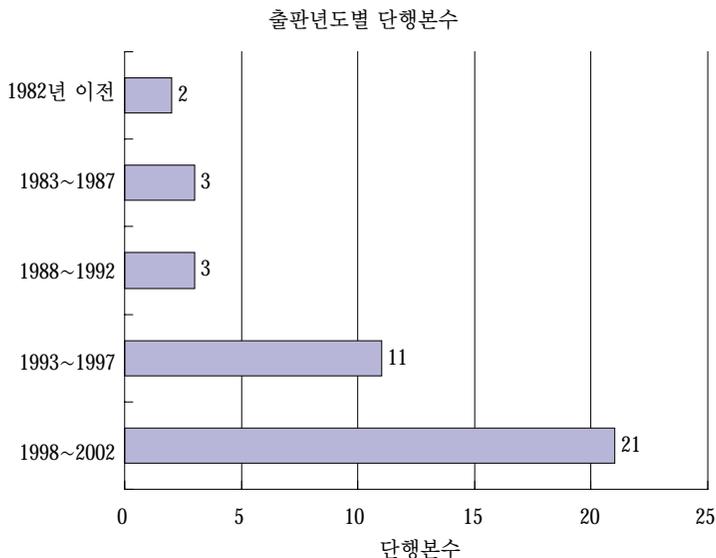
앞서 이야기했듯이, 외국인 번역자의 경우는 대부분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중 국내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Francisco Carranza Romero가 8권의 단행본 번역에 참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Raúl Aceves가 5권, Othón Moreno가 3권, Ricardo Sumalavia, Oscar Mavila Marquina 등이 각 2권, J. A. Poyatos, Jesús Molero Sánchez, Mario Alonso, Paciencia Ontañón de Lope, Jorge Orendáin 등이 각 1권씩의 단행본 번역에 참여하였다. 이상 언급된 외국인 번역자들은 모두 공동번역자로 참여한 사람들이며, 유일하게 단독으로 한국문학작품을 스페인어로 소개한 외국인 번역자는 불어판 『시인』(이문열)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Ana Roda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문학을 스페인어권에 번역 소개함에 있어서 스페인어에 정통한 한국인 번역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절대적이며,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정통한 현지인 번역자 및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양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4) 출판년도, 출판지, 출판사 및 출판 매체별 현황

도표 <출판년도별 단행본수>는 2002년 말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분류한 번역출판 단행본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빌라(Avila)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한국 시선집이 발간된 이래, 점진적으로 한국문학작품이 스페인어권에 번역 소개되었다. 1992년 이전까지는 스페인어로 번역 소개된 작품의 수가 아주 제한적이었지만, 그 이후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작품이 스페인어권에 소개되기 시작해, 현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역출판이 활성화된 양상을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다. 최근의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무엇보다도 국내 번역지원기관의 지원정책에 힘입은 것이며, 또한 스페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즉 스페인어문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의 증가도 이러한 추세에 한 몫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번역과정에 있는 문학작품들을 고려해 볼 때,¹⁰⁾ 앞으로 한국문학의 스페인어로의 번역출판은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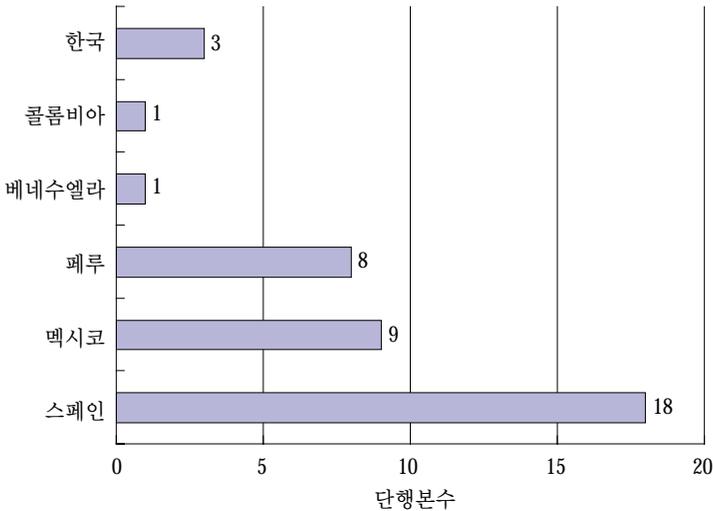
스페인어권 국가들 가운데 한국문학작품은 도표 <국가별 출판 단행본수>에

10)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및 대산문화재단의 번역지원을 받아 번역중이거나 출판 준비중인 한국문학작품(2002년말까지 번역출판되지 않은 작품)은 40종이 넘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시>: 고은 시선(만인보), 김광규(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김남조 시선, 김혜순 시선, 박두진 시선, 박제천 시선, 오세영(무명연시, 벼랑의 꿈), 유지환 시선, 이상 시선, 정형중 시선, 조경권(산정묘지), 최승자 시선, 최승호(그로테스크), 황지우 시선, 한국오인시선. <소설>: 고은(화엄경), 박경리(김약국의 딸들), 박영한(머나먼 송바강), 박완서(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윤홍길(장마, 기억 속의 들꽃, 물매), 이문열(금시조 외), 이상 외(단편선), 이승우(생의 이면), 이인화(영원한 제국), 이정준(단편선, 당신들의 천국, 예언자), 이호철(남녘사람 북녘사람), 이효석 단편선(메밀꽃 필무렵), 임철우 단편선, 최인훈(광장, 등등낙락등), 하근찬 단편선, 황석영(객지, 아우를 위하여, 손님), 황순원(중단편선, 나무들 비탈에 서다). <고전>: 허균(홍길동전), 춘향전, 한국고시조선, 구전설화.



서 보듯 스페인에서 18종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었으며, 멕시코에서 9종, 그리고 페루에서 8종이 출판되었다.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20여 개국 중 이들 세 나라에 출판이 집중된 이유는, 출판사의 선택이 번역자의 연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스페인어권 국가들 가운데 문화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이고, 다수의 한국인 번역자들은 스페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출판한 번역자의 경우도 현지 대학에서 재직 중이거나 현지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페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문학작품이 출판되긴 했지만, 출판된 8권의 번역서가 모두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페루 카톨릭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제 페루의 출판시장은 아주 제한적이다. 국내에서 출판된 스페인어 번역 한국문학작품은 3종이며, 모두 대학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한국문학과 관련된 스페인어 정기간행물 1종이 현재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¹¹⁾ 출판 도시별로는 마드리드 14종, 바르셀로나 2종, 빌바오 2종(이상 스페인), 멕시코 시티 6종, 과달라하라 3

국가별 출판 단행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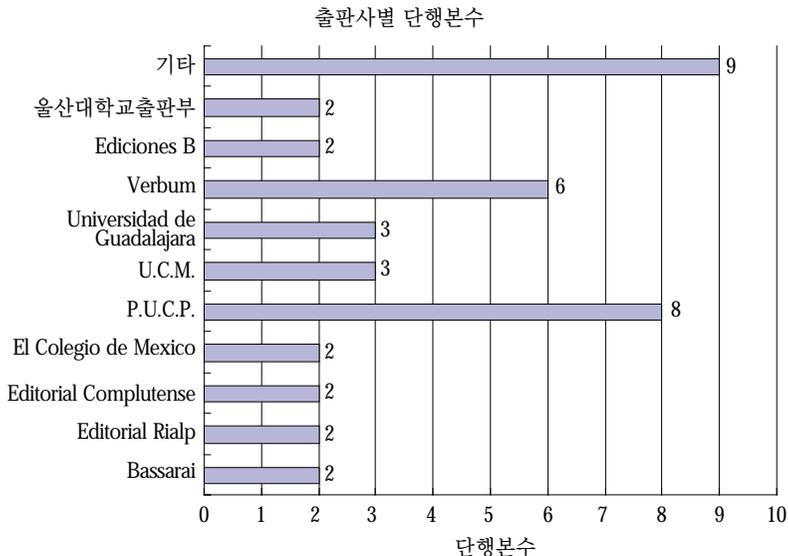


종(이상 멕시코), 리마(페루) 8종 등으로, 각국의 수도에서 한국문학작품의 번역서가 가장 많이 출판되었다.

출판사별로 간행된 한국문학의 스페인어 번역서를 파악해 본다면, 도표 <출판사별 단행본수¹²⁾>에서 보듯이, P.U.C.P.와 Verbum(베르븀)사가 단연 눈에 띈다. P.U.C.P.에서 출판된 한국문학작품은 소설 및 소설집이 4종, 시선집이 2종, 기타 문학평론 및 문학사가 2종으로 다양하게 출판되었으며, Verbum사에서 출판된 6종 가운데 시집 혹은 시선집이 5종이며 나머지 1종은 신화집

11) 현재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계간지 *Koreana: Arte y Cultura de Corea*(한국의 예술과 문화)이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서 *Korean Literature Today* 스페인어 판이 2001년 가을에 한 차례 간행된 바 있다.

12) 이 도표에서 U.C.M은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출판사의 약자이며, P.U.C.P는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페루 카톨릭 대학교) 출판사의 약자이다.



이다. U.C.M.에서 출판된 3종은 모두 서정주의 시집이며 동일한 번역자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해외 대학출판사에서 16종, 그리고 국내 대학출판사에서 3종의 한국문학 번역서가 출판되었다는 사항도 고려할만한 문제이다.¹³⁾ 스페인어 번역서 중 절반 가량이 대학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은 아직까지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에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며, 또한 한국문학 번역서의 출판시장 확보에 그만큼 어려움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이들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국내 번역지원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출판 지원을 받고 한국문학을 간행하고 있으며, 한국문학작품이 스페인어권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선정에도 주의를 요한다.

특정한 출판사를 통해 한국문학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것은 출판시장의

13) 한국문학작품의 스페인어 번역서를 출간한 해외 대학출판사는 P.U.C.P., U.C.M., Universidad de Guadalajara, El Colegio de México 등이며, 국내 대학출판사는 울산대와 서울대이다.

획일화라는 취약점이 있는 반면, 이를 상쇄시키는 장점들이 있다. 즉 하나의 출판사에서 한국문학의 특정한 장르나 주제를 체계 있게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으며, 전문연구자나 관심 있는 독자들이 좀더 용이하게 한국문학작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 분야를 전문적으로 소개해 온 스페인의 Verbum사는 이 점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P.C.U.P. 출판사의 경우는 대학출판사시기에 일반 대중들에게 간행한 책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문학작품집과 더불어 문학평론집과 문학사와 같은 한국문학 관련 전문서적 또한 출판함으로써 한국문학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소개해 왔다.

5) 번역지원 정책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원, (구)한국문학번역금고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이 활발한 번역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작품들은 이들 기관의 번역지원으로 대부분 번역 출판되었다.

대산문화재단은 1993년부터 한국문학 번역지원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5년부터 스페인어를 번역 지원어권에 포함시켰다.¹⁴⁾ 그 이후로 매년 두세종의 한국문학작품의 스페인어 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총 17종의 한국문학작품을 스페인어 번역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산문화재단의 번역지원 대상작품 선정 원칙은 “세계화할 가치가 있고 세계적인 문학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우리 문학작품과 전년도 대산문학상의 시, 소설, 희곡 부문 수상작”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¹⁵⁾ 또한 번역자 선정시 한국인과

14) 현재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어권은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4개 언어권이며, 어권별로 2~5건의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각 1천만 원의 번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어민의 공동번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번역이 완료 후에는 해당어권에서의 출판지원도 겸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정부의 한국문학 해외소개 사업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구)한국문학번역금과 문화예술진흥원의 한국문학해외소개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2001년 3월초에 출범한 정부출연 재단법인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권에 대한 번역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전작품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출간된 한국문학작품으로서 그 문학적 우수성에 대해 문학계의 객관적 인정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는 원칙 하에 번역지원 대상작품을 선정하고 있다.¹⁵⁾ 또한 원어민과 한국인 모두에게서 번역지원 신청을 받으며 원어민과 한국인의 공동번역을 권장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원과 (구)한국문학번역금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을 받아 스페인어권에서 번역 출판되었거나 번역 및 출판이 진행중인 한국문학작품들은 50여 종에 이른다.

이들 번역지원 기관 외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행하는 *Koreana*는 한국의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특집기사와 함께 생활양식, 자연환경, 문학작품, 인물 등을 소개하는 문화예술전문 종합 계간지로 1987년 영어판 창간을 시작으로 1998년까지 일어판, 스페인어판, 중국어판, 불어판으로 확대 발간된 바 있고, 현재는 영어판과 중국어판, 스페인어판 등 3개 국어로 발간되고 있다.¹⁷⁾

15)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번역지원 선정원칙으로 삼고 있다. 1. 출판했을 때 현지에서 수용가능성이 있는 작품, 2. 소설의 경우 중, 장편 소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3. 중요한 작가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선정함, 4. 희곡의 경우 민속적, 고전적 가치가 있는 작품과 비교연극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 5. 고전 및 아동문학 작품 포함.

16)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 원작의 문학성, 번역원고의 완성도, 해당 언어권에서의 수용 기대치 등이며 천 오백만 원 내외의 번역지원금을 지급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지원 이외에도, 출판지원, 출판마케팅지원, 한국문학 번역상, 한국문학 번역 신인상, 한국문학 해외교류사업, 한국문학 번역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17) *Koreana* 영어판은 138개국 6,000여 개처에서, 중국어판은 중국을 중심으로 15

한국문학과 관련하여 이 계간지는 단편소설을 위주로 번역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전문비평가들의 작가평도 더불어 소개하고 있다.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작품 대부분이 상기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번역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기 기관들의 번역지원 정책은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작품 현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번역지원 기관이 지정한 번역대상 작품목록의 테두리 내에서 번역대상 작가와 작품의 선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어인과 원어민의 공동번역이라는 틀이 정착되었다. 비록 다양한 작가와 작품이 자율적인 틀 속에서 번역 소개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제한된 제반 여건 속에서 한국문학의 효율적인 소개를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정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스페인어권에 있어 한국문학의 소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에 정책적 번역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며, 번역지원 정책의 체계성 여하에 따라 그 소개 성과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 현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번역 대상 작가와 작품 선정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말까지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의 양상은 시대별로는 현대, 그리고 장르별로는 시 위주로 번역 출판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순수한 고전문학만을 다룬 단행본은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았으며, 3권의 시선집에 현대시들과 같이 실린 고전시 계열의 작품, 즉 향가, 고려가요, 한시, 시조 등이 부분적으로 소개된 수준이다. 더군다나 고전작

개국 2,700여 개처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스페인어판은 23개국 2,300여 개처에 배포되고 있다.

품이 포함된 3권의 시선집 중 한 권은 1967년에 출판된 것이며, 또 한 권은 1987년 국내 대학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기에,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고전문학의 실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렇듯 스페인어권에 있어 고전문학 소개가 미약한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스페인어권에 있어 한국문학의 소개가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와 본격적인 번역소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단행본 가운데 1995년 이후에 출판된 단행본의 비율은 78%에 이르며, 현재 번역 및 출판 진행중인 작품수는 지금까지 출판된 총단행본수를 상회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은 대부분 번역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번역된 작품들로, 지금까지 그 기관들의 번역지원 정책은 국제적인 문학상이라든지, 현지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대문학 위주로 지원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고전작품의 경우, 번역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도 존재하기에, 번역자들이 작품 선정시 현대작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고전작품이 미약했지만, 현재 홍길동전, 춘향전, 한국고시조선, 구전설화 등의 고전작품이 번역 및 출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고전문학을 소개할 필요성의 인식과 더불어 번역지원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다.¹⁸⁾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의 장르별 비율(단행본 기준)을 보면, 시 60%, 소설 32.5%, 기타 7.5%이다. 지금까지 시는 소설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많이 스페인어권에 소개되었다. 소설과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는 시의 장르적 특성은 그 번역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난다. 소설은 직역을 통해서도 원텍스트의 의미전달이 대부분 가능한 반면, 시는 문체, 운율, 단어의 다의성, 독특한 개인적 정서 등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텍스트로서, 그 번역 자체의 유용성마저 논의될 정도로 번역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¹⁹⁾ 또한

18)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 비록 영어 번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고전문학 시리즈를 지정하여 번역공모하고 있으며, 지원에 있어서도 우대를 하고 있다.

19) 시의 스페인어 번역에 관한 문제는 민용태의 「주관적 보편성 옮겨심기」(김중

언어적 문화적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번역된 시를 수용하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권에 시가 소설보다 더 많이 소개된 원인을 지적하자면, 먼저 시 장르에 대한 번역자의 선호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번역자의 선호도는 개인적 취향과 사명감뿐만 아니라, 번역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론 같은 양의 산문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시 하나를 번역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이 훨씬 크지만, 전체적인 양을 고려해 본다면, 소설 한 작품보다는 시집 한 권에 드는 투자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장르에 구분 없이 동일한 번역지원을 받아 번역출판을 한다면, 비록 절대적인 경향은 아니지만, 좀 더 수월한 장르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현재 번역 및 출판 중에 있는 작품의 장르별 비율을 살펴보면(각주 10번 참조), 소설과 시가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 장르별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의 장르적 불균등을 번역지원기관들이나 번역자들이 공히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번역지원기관의 제도적 장치로 번역작품 지원시 장르별 할당을 하거나, 장르별 혹은 번역량과 난이도에 따라서 번역지원에 차등을 두는 문제도 고려해 볼만하다.

시 장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지금까지 주로 한국의 시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시선집 형태로 번역 출판된 경우가 여럿 있고, 여러 시인들의 시를 묶어 번역 출판하는 경우도 곧잘 눈에 띄며, 개별 작가의 시들도 시선집 형태로 대부분 출판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번역 소개의 초기 단계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점차 번역 소개가 활성화된다면 개별 작가의 시집을 위주로 번역 소개하되, 시선집 형태라면 적어도 번역 소개되지 않은 개별 작가의 시를 다루는 것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길 외,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 민음사, 1997, pp. 377-393)와 「시 번역에 있어서의 어순 문제」(『제1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학번역원, 2002, pp. 159-162) 참조.

그리고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에서 나타나는 일부 작가에 대한 편중 현상은 소설 장르에서 두드러졌다. 소설 장르의 경우 중장편이나 단편에 관계없이 번역 출판된 작품수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가, 중장편의 경우 이문열의 작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소개된 장편소설 작가는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번역 중이거나 출판 중인 작품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점차 개선되리라 전망한다.

2) 전문 번역자 양성 및 번역자의 문제

스페인어권에 한국문학을 소개한 한국인 번역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스페인어문학 전공자이며, 이들 전문인력의 증가는 스페인어로의 한국문학 번역작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한 가지 요인이다.

현재 스페인어권에 있어 한국인과 원어민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제도가 정착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는 한국인 번역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원어민이 주도적으로 번역한 경우는, 불어판 『시인』(이문열 작)을 스페인어로 옮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으며, 번역에 동참한 원어민의 역할은 대부분 한국인 번역자의 번역문에 대한 검토 및 운문에 한정되어 있다. 비록 한국인 번역자가 한국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스페인어 구사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현지의 문학적 관심사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정통한 현지 번역자 및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양성할 것인가는 현재 스페인어권에 있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스페인어권에서 학문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이며, 주로 한국의 정치 및 경제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문학을 포함한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스페인어권 국가들 가운데 스페인, 멕시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스페인의

Universidad de Salamanca, Universidad Autónoma de Barcelona, 그리고 멕시코의 El Colegio de México 등 세 기관에 불과하다.

현재 스페인어권에서 한국학 관련 과정이 관련 대학 내에서 독자적인 학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아시아-태평양지역학, 국제지역학, 어문학 등에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Centro español de investigaciones coreanas(스페인한국학회)와 같은 한국학 전문 단체가 결성되는 등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그 연구 및 지원 기관의 설립도 점차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권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제대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학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능력 있는 현지인 번역자 및 한국문학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페인어권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처음 시작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았으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단계이므로 이 모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3) 스페인어 번역의 기술적 문제

한국문학을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번역자가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한국의 인명 및 지명 등을 비롯한 고유명사를 스페인어 표기로 옮기는 일이다. 외래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정한 용례에 따르면 되지만, 한국 고유명사를 스페인어 표기로 옮길 경우 정해진 표준이 없기에 개별 번역자에 따라 그 표기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작가명을 다음에서 예로 들어 본다.

황진이: Hwang Jin-Hi(김현창 역), Juang-Chini(민용태 & 정권태 역)

서정주: So Jong-Ju(김현창 역), So Chung-Ju(민용태 역)

한용운: Han Yung-Un(김현창 역), Jan Yong-Wun(김창환 역)

윤동주: Yun Dong-Chu(김현창 역), Yun Tong-Ju(권은희 & 윤준식 역)

이상의 작가명을 비롯한 고유명사 외에도 문학 장르 특히 향가, 한시, 고려 가요, 시조 등의 고전문학 장르명칭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 표기 기준이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의 경우, 번역자의 재량에 따라 장르명칭의 번역 표기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관성 및 원칙이 부재한 상태이다.

현존 작가의 경우 그 작가가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표기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전 시대의 작가들의 이름은 로마자 표기 원칙이 변함에 따라 시대마다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로마자 표기 원칙이 스페인어의 음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작가명의 경우에는 고유한 로마자 표기명이나 로마자 표기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스페인어의 음가를 고려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게 우리의 문학을 알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또한 같은 로마자를 쓴다는 이유로 음가가 확연히 다른 경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스페인어 표기는 한국문학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 스페인어권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원어면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라면, 그 동안 한국문학의 스페인어 번역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한국인 번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번역지원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몇 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스페인어 표기 기준을 정한 후, 각종 번역 지원시, 이를 홍보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기타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어권 20여 국가 가운데, 스페인, 멕시코, 페루 등 3개국에서 주로 한국문학작품이 번역 출판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번역서 대부분이 대학출판사나 소형출판사를 통해 발간이 되었고, 대형 출판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내 번역지원기관들의

출판지원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스페인어권에 한국 문학을 고루 소개하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출판된 한국문학 서적을 스페인어권 국가들 상호간에 유통시키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스페인과 중남미를 포괄하는 대형출판사에서 한국문학작품의 번역출판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스페인과 중남미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학 관련 기관들을 연결하고 관련 국내 기관과도 상호협력 및 정보의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2003년 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개관한 사이버한국문학관은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마련 사업의 훌륭한 예가 될 것이다.

번역지원 정책은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작품 현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데, 특히 번역할 작품 선정에 있어서, 각 번역지원기관들이 선정해 놓은 “번역대상 작품목록”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주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번역대상 작품목록은 전반적으로 번역이 미진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한국문학 소개를 위해서는 유효하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문학적 수용은 한 작품이 국문학사에서 가지는 의미나 역할과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는다.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번역될 수 있는 여건이 장래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한국문학은 다른 주요 언어권에 비해 스페인어권에 뒤늦게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번역 출판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번역중이거나 출판 준비중에 있는 단행본수가 지금까지 소개된 총단행본수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대산문화재단 및 한국문학번역원 등과 같은 번역지원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스페인어 번역 전문인력의 증가를 꼽을 수가 있다. 스페인어권 국가들 중 스페인, 멕시코, 페루 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 번역 출판되었으며, 스페인의 Verbum사와 페루

의 출판사에서 한국문학작품 출판이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번역지원을 받아 출판되기에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 현황은 번역지원기관들의 번역지원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번역 대상 작품 및 작가의 선정을 비롯하여 한국인과 원어민의 공동 번역 제도를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세히 살펴본 스페인어권 현황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시대별로는 고전문학 소개가 미진하고 장르별로는 현대시 위주로 소개되었으며, 시 장르는 서정주, 소설 장르는 이문열의 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 출판되었다. 시 장르의 경우 시선집 위주로 소개된 작가일수록, 그리고 작가의 대표작일수록 중복게재 혹은 중복번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설 장르의 경우 70년대 이후의 작품들이 주로 번역 소개되었다. 이러한 작품의 시대별 불균형과 장르별 불균형, 그리고 작가의 편중현상 등은 번역 소개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앞으로 출판될 작품들의 경향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번역지원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장르별 할당을 한다든지, 번역량이나 번역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번역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몇몇 번역자의 경우 특정 작가나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선호도는 소개 현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또한 한국인과 원어민 번역자가 공동으로 번역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는데, 주로 한국인이 번역을 하고 원어민은 검토 및 운문에 한정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 및 한국문학에 정통한 현지 전문가 및 번역자 양성 문제는, 한국문학의 수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리고 현지의 필요성에 의해 번역되고 출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페인어권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비록 스페인어권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역사가 짧고, 한국학은 아직까지 독자적인 학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스페인어권에 있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연구 또한 활발해지고 있으며,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학 전문 단체가 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움직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

과적으로 상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고유명사나 장르 명칭에 관한 스페인어 표기의 문제, 스페인과 중남미 20여 개 국가를 포괄하는 대형출판사에서 한국문학을 출판하는 문제,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학 관련 기관들 상호간의 협력 및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에서 스페인어권에 소개된 한국문학의 현황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국문학이 이제 막 스페인어권에 활발히 소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더디더라도 그 노력들은 결실을 거두리라 기대한다.

〈한국문학작품의 스페인어 번역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목록(2002년 말 기준)〉²⁰⁾

1) 시집 및 시선집

고 은, *Fuente en llamas: Poemas seleccionados de Ko Urx*(불타는 샘: 고은 시선), 서성철 공역,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1999(현대, 시선집).

_____, *Una piedra en el límite de los campos*(뭉나), 정권태 공역, México, Oro de la noche, 1999(현대, 시집).

김소월, *Antolog a poética de Sowol Kim*(김소월 시선), 김창환 공역,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1995(현대, 시선집).

김춘수, *Poemas*(김춘수 시선), 김창민 공역, Madrid, Verbum, 1999(현대, 시선

20) 스페인어권을 비롯한 전세계 24개 언어권을 포괄하는 한국문학 번역서지목록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위탁을 받은 연세대 유럽문화정보센터에서 조사하였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이 2003년 봄에 개관한 사이버한국문학관(www.korealit.net, www.korealit.com)의 텍스트문학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 집).
- _____, *Poseído por Dostoievski*(들림 도스토예프스키), 윤선미, 김승기 공역, Bilbao, Bassarai, 2001(현대, 시집).
- 서정주, *Junto al crisantemo*(국화 옆에서), 김현창 역,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1988(현대, 시선집).
- _____, *Poemas*(서정주 시선), 김현창 역,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1995(현대, 시선집).
- _____, *Epítome de Sil-La*(신라초), 김현창 역,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1997(현대, 시선집).
- _____, *Poemas de un niño vagabundo de ochenta años y otros poemas escogidos*(80소년 떠돌이의 시 외), 김현창 역, Madrid, Verbum, 2000(현대, 시집).
- 서정주 외, *Poesía coreana actual*(한국 현대시), 민용태 역, Madrid, Ediciones Rialp, 1983(현대 시선집).
- 오세영, *El cielo de Dios también tiene oscuridad*(신의 하늘에도 어둠은 있다), 정권태 공역, México, Vuelta, 1997(현대, 시선집).
- 월명사 외, *Poesía coreana*(한국의 시), 김현창 역, Madrid, Avila, 1967(고전/현대, 시선집).
- _____, *Antología de la poesía coreana*(한국 시선집), 김현창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고전/현대, 시선집).
- 우리왕 외, *Flor y oro de la poesía coreana*(한국 명시선), 민용태 공역, México, Editorial Aldus, 2001(고전/현대, 시선집).
- 윤동주, *Cielo, viento, estrellas y poesía*(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권은희, 윤준식 공역, Madrid, Verbum, 2000(현대, 시선집).
- 이형기, *La ciudad inmortal*(죽지 않는 도시), 정권태 공역,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 1998(현대, 시선집).
- 정현종 외, *El tiempo transparente: poesía coreana contemporánea*(투명 시대: 한국 현대시선), 추원훈 공역,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

- 1996(현대, 시선집).
- 천상병, *Regreso al cielo*(귀천), 김창민 공역, Madrid, Verbum, 2000(현대, 시선집).
- 한용운, *Antología poética de Jan Yong-Wun*(한용운 시선), 김창환 역,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1995(현대, 시선집).
- _____, *Su silencio*(님의 침묵), 김현창 역, Madrid, Verbum, 2002(현대, 시집).
- 황동규, *Posada de Nubes y otros*(물운대행 외), 이승재 공역,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 1998(현대, 시선집).
- Antología general de la poes a coreana*(한국 시선집), 정권태,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 1991(미확인도서).
- El cielo de invierno*(동천), 민용태 역, Madrid, Ediciones Rialp, 1983(미확인도서).
- Versos coreanos*(한국의 시), Caracas, Arbol de Fuego, 1977(미확인도서).

2) 소설 및 소설집

- 김동리, *Ulhwa, la exorcista*(을화), 김은경 역, Madrid, Editorial Complutense, 2000(현대, 소설).
- 김원일, *La casona de los patios*(마당 깊은 집), 고혜선 공역,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 1995(현대, 소설).
- 김원일 외, *La cárcel del corazón y otros relatos*(마음의 감옥 외), 고혜선 공역,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 1994(현대, 소설집).
- 김주영, *El pescador no tala*(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고혜선 공역,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 1996(현대, 소설집).
- 박영준 외, *Cuentos coreanos*(한국 단편소설선), 고혜선 역,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1(현대, 소설집).
- 오정희, *El espíritu del viento y otros relatos*(바람의 넋 외), 고혜선 공역,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1997(현대, 소설집).
- 이문열, *El invierno de aquel año*(젊은 날의 초상), 고혜선 공역, Barcelona,

- Ediciones B, 2002(현대, 소설).
- _____, *Nuestro frustrado héroe*(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김진수 공역, Madrid, Editorial Complutense, 1998(현대, 소설).
- _____, *El poeta*(시인), Ana Roda 역, Bogotá, Editorial Norma, 1994(현대, 소설).
- _____, *El poeta*(시인), 채미영 역, Barcelona, Ediciones B, 2000(현대, 소설).
- 이 상, *Flores de fuego*(불꽃), 송병선 공역, Bilbao, Bassarai, 2001(현대, 소설집).
- 이호철, *El ciudadano pequeño*(소시민), 유해명 공역,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 1999(현대, 소설).
- 전상국, *La familia de Abe*(아베의 가족), 고혜선 공역,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 2001(현대, 소설집).

3) 기타

- 김흥규, *Comprensión de la literatura coreana*(한국문학의 이해), 이용선 공역,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 2002(현대, 기타).
- 작자미상, *Cuentos y leyendas tradicionales de Corea*(한국의 전통설화), Madrid, Editorial Miraguano, 2001(미확인도서).
- 조동일 편,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한국문학강의), 이용선 공역,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Perú, 2000(현대, 기타).
- 황패강, *Mitos coreanos*(한국의 신화), 김창민 공역, Madrid, Verbum, 2002.

4) 정기간행물

- Koreana: Arte y cultura de Corea*(한국의 예술과 문화),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계간.
- Korean Literature Today (Spanish Edition) Fall 2001*, 서울,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참고 문헌 및 관련 웹사이트

- 강형철, 「번역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한 생각」, 『2002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학 해외소개정책』, 한국문학번역원, 2002, pp. 31-34.
- 고혜선, 「한국 소설의 스페인어 번역에 관한 고찰」, 『제1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학번역원, 2002, pp. 163-170.
- 곽효환, 「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현황과 과제. 세계화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 그러나 아직은 먼 길」, 『문예중앙』, 2002 봄호, pp. 324-348.
- 권영민,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그 실상과 문제점」, 『한국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pp. 459-493.
- 권영민 외, 『한국문학 해외선양을 위한 기본계획연구』, 서울대 예술문화연구소, 1999.
- 권택영, 「무엇을 소개할 것인가 — 패러다임의 중요성 —」, 『2002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학 해외소개정책』, 한국문학번역원, 2002, pp. 17-24.
- 김종길, 「한국 문학 세계화의 현실」, 김종길 외,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 서울, 민음사, 1997, pp. 13-24.
- 김현창, 임호준, 「한국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상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학술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40집, 2001.
- 김흥규, 진경환, 『한국문학 번역 현황의 통계적 분석과 정책 방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 김흥규 편,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 한국문학번역금고·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 민용태, 「주관적 보편성 옮겨심기」, 김종길 외,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

- 서울, 민음사, 1997, pp. 377-393.
- _____, 「시 번역에 있어서의 어순 문제」, 『제1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학번역원, 2002, pp. 159-162.
- 오세영, 「우리 문학의 해외 소개를 위한 몇가지 제언」, 『2002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학 해외소개정책』, 한국문학번역원, 2002, pp. 25-30.
- 이어령,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점」, 『2002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 자료집, 기초강연』, 한국문학번역원, 2002, pp. 3-8.
- 정경원, 「세계 속의 한국문학」, 『노벨문학상과 한국문학』, 박철 외, 월인, 2001.
- 한국문학번역원, 『2002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 자료집』(제1분과: 문학의 번역, 제2분과: 해외수용 — 한국문학 읽기, 제3분과: 문학의 정체성과 보편성, 제4분과: 해외소개정책),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002년 12월 11일-12일.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일본 문학의 세계화과정 기초 연구』, 1996.
- Carranza Romero, Francisco, “La traducción de obras coreanas al español”, 김종길 외,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 서울, 민음사, 1997, pp. 173-191.
- Hopkins Rodríguez, Eduardo, “Propuestas para la traducción de textos literarios coreanos al español”, 김종길 외,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 서울, 민음사, 1997, pp. 394-407.
- _____, 「페루에서 출판된 한국문학」, 『2002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 자료집, 해외수용 — 한국문학 읽기』, 한국문학번역원, 2002.
- Robinson, Douglas, *Translation and Empire*(『번역과 제국』, 정혜욱 역, 서울, 2002).
- www.daesan.or.kr(대산문화재단)
- www.kofo.or.kr(한국국제교류재단)
- www.korealit.net, www.korealit.com(한국문학번역원 사이버한국문화관)
- www.ltkoera.net(한국문학번역원)

www.textkorea.com(이텍스트코리아)

www.ceic.ws(스페인한국학회)

www.casaasia.es(스페인아시아지역연구원)

ABSTRACT

Estudio de la difusión de la literatura coreana en los países hispanohablantes

Kim, Sang-Yu

Este trabajo pretende investigar los aspectos característicos y los problemas que surgen en el proceso de difusión de la literatura coreana en los países hispanohablantes, teniendo en cuenta las estadísticas de la literatura coreana traducida en español: las de época, género, autor, traductor, año publicado, lugar publicado, editorial, etc. Hasta finales del año 2002 se han traducido al español más o menos 40 textos literarios coreanos, y actualmente no pocas obras están en proceso de traducción o publicación.

En 1967 se publicó la primera obra literaria coreana en Madrid, y desde mediados de los años 90 se ha aumentado mucho el ritmo de la traducción y publicación de la literatura coreana en el mundo hispánico gracias al apoyo financiero de algunas instituciones de fomentación de la literatura coreana, como la Fundación Daesan y el Instituto de Traducción de la Literatura Coreana. Entre los países hispanohablantes nuestras obras traducidas se han publicado mayormente en España, México y Perú, y las editoriales más destacadas en la publicación de las obras coreanas son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y Verbum (Madrid).

La mayoría de las obras traducidas pertenece a la época moderna, y genéricamente, a la poesía. Hasta ahora las obras coreanas traducidas al español carecen de equilibrio en cuanto a épocas y géneros literarios. Este desequilibrio se deriva primordialmente de que no es larga la historia de la difusión de la literatura coreana en el mundo hispánico. Pero somos optimistas y suponemos que el problema va a mejorarse, al tener en cuenta las obras que están en proceso de traducción o publicación.

El sistema de traducción ahora se ha consolidado en una colaboración estrecha entre el traductor coreano e hispano: primero, el coreano traduce el texto coreano al español y luego el hispano corrige el texto traducido. Sin embargo, el mayor peso de la traducción al español se le encarga al traductor coreano. En la labor de intercambio cultural el problema fundamenteal es que todavía faltan especialistas hispanos en la literatura coreana o en su traducción. Para la difusión eficiente y efectiva de la literatura coreana se debe solucionar este problema apoyando sus actividades y estrechándose la relación con los especialistas hispanos en el estudio coreano.

A pesar de la existencia de diversos problemas en la traducción y publicación, considerando el hecho de que tan sólo desde hace poco tiempo haya empezado la difusión de la literatura coreana en los países hispanohablantes y que allí gradualmente está aumentando el interés por el mundo coreano, está claro que, aunque sean tardíos, tendrán frutos esos esfuerzos.